

이즈미야마 자석장

지역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즈미야마 자석장은 1600년대 초 수십 년 사이에 조선인 도공 가나가에 산베에(통칭:이삼평)(~1655년)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산베에가 발견한 것은 도석이라는 석영, 견운모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대량의 퇴적물입니다. 견운모는 미세한 입자를 가진 운모의 집합체로, 이 견운모가 분석을 점토처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즈미야마에서 채굴되는 도석은 질이 높고 양도 풍부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최초로 자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말 서양 기술이 도입되기 전까지 채굴 작업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채석장의 운영 상황과 노동자의 생활을 담은 기록 중 실제로 도석을 채석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료 중 하나로 1830년대부터 1850년대에 걸쳐 제작된 큰 접시에는 수작업으로 도석을 잘라내는 등 아리타 도자기의 전통적인 생산 공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접시 원본은 아리타 도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크게 재현한 것이 채석에 사용되었던 도구와 함께 아리타초 역사민속자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즈미야마는 1980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1995년까지 채석장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